

한복(韓服)의 치수 설정(設定)에 관한 연구(研究)(Ⅱ)

—여자 저고리를 중심(中心)으로—

李 柱 媛

<崇義女子專門大學 助教授>

目 次

I. 序 言	
II. 저고리의 起源과 祖型	
1. 저고리의 起源	
2. 저고리의 祖型	
III. 치수 設定 方法에 따른 저고리의 計量的 用語	
IV. 저고리 치수 設定時 고려해야 할 基本要素	
1. 機能的 要素	
2. 美的 要素	
3. 저고리에서 본 基本要素間的 相互關係	
(1) 고구려 벽화에서 본 저고리	
(2) 實物로 본 조선초·중기의 저고리	
(3) 實物·繪畫에서 본 조선후기의 저고리	
(4) 현대 저고리	
V. 結 語	
參考文獻	

I. 서 언(序言)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의(上衣)와 하의(下衣)가 구분된 북방계(北方系)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체형형(體形型)(tunic style)의 이부형식(二部形式)(suits style)인 유고제(襦袴制)¹⁾이었다. 여기서 유(襦)란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허리에 띠를 매었던 형태의 저고리를 의미한다.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유(襦)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서 현대(現代)에 이르기까지 저고리의 형태를 비교해 볼 때 다소(多少)의 변화는 있었지만 저고리의 조형(造型)은 어디까지나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유(襦)가 기본이었으며 여기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인 변천을 거쳐 끊임없는 흐름으로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의 남복(男服)이 대체로 중국제(中國制)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인 데에 반하여 여복(女服)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의 양식(樣式)이 가장 많이 유지되고 있었으니, 이는 우리 여성자체(女性自體)의 보수성(保守性)에 기인한 것이며 끈질긴 민족성(民族性) 때문이었으리라고 믿어진다.

저고리의 형태는 길[동(胴)], 소매[수(袖)], 싹[임(衿)], 깃[금(衿)·령(領)] 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構成要素)들이 서로 봉재(縫裁)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이와같은 구성방법(構成方法)은 남복(男服)과 여복(女服)이 모두 같다. 단지 이 때에 각 구성요소(構成要素)들의 치수 설정방법(設定方法)에 따라 형태에 있어서 시대적(時代的)으로 길

1) 劉頌玉, 高句麗服飾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28집, 1980.

이의 장단(長短), 소매통의 광착(廣窄) 등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 저고리를 중심으로 하여 저고리의 기원(起源)과 조형(祖型)을 알아보고, 치수설정(設定) 방법(方法)에 따른 저고리의 계량적(計量的) 용어(用語)를 정리해보며, 저고리 치수 설정(設定) 시(時)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基本要素)를 분석(分析)해보고 이들간의 상호관계(相互關係)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미 선행연구(先行研究)²⁾에서도 여자 저고리를 중심으로 하여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도구(道具),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명칭분석(名稱分析),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신체(身體)치수,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의 상관성(相關性) 등에 대해 다룬바 있다.

본 연구가 한복(韓服)의 구성학적(構成學的)인 분야(分野)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의 지속적(持續的)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저고리의 기원(起源)과 조형(祖型)

1. 저고리의 기원(起源)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어떠한 동기로 인해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유물로 발견된 방추차(紡錘車)와 골침(骨針)이 있고,³⁾ 이미 한반도(韓半島)에서도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 바늘에 실을 꿰어 사용한 흔적이 유물로 밝혀져서 이 때의 의복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한민족(韓民族)의 형성시기(形成時期)에 이미 의복다운 형태를 갖춘 우리 옷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의복형태의 기본형으로는 요의(腰衣), 가사의(袷褌衣), 관두의(貫頭衣) 등을 들 수 있는데,⁴⁾ 현재 일반적으로 착용되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관두의(貫頭衣)에서 발달된 것이라고 본다.⁵⁾ 관두의(貫頭衣)는 장방형(長方形)의 옷감을 반으로 접고, 접은 자리의 한 가운데에 머리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구멍을 낸 형(型)의 옷이다.

우리 민족의 저고리의 원시복(原始服)은 바로 이와같은 관두의(貫頭衣)였을 것이며, 이 관두의(貫頭衣)를 전개(前開)하고 여기에 소매를 달면 저고리의 기본형이 성립되고, 다시 여기에 별포(別布)의 섶과 깃이 달린다면 세부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저고리와 더욱 흡사해질 것이다.⁶⁾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저고리가 오랜 전통 속에서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점차적인 변천을 거쳐 지금과 같은 형식(形式)으로 발달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2. 저고리의 조형(祖型)

저고리의 조형(祖型)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고분벽화에 나타난 저고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직령교임형(直領交衽型)에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허리에 대(帶)를 들렀으며 깃·도련·부리에 다른 색의 선(襖)을 두르고 착수

2) 李柱媛, 韓服의 치수 設定에 관한 研究(I), 文化財20號, 文化財管理局, 1987.

3) 韓國史 卷1, 震壇學會, 1959.

4) 徐英淑, 被服材料·管理, 螢雪出版社, 1975.

5)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卷1, 光生館, 1958.

田中千代, 服飾事典, 同文書院, 1978.

6)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형(窄袖型)의 소매가 달린 형태이다.

그러나 4세기경의 저고리라 할 수 있는 안악(安岳) 3호분(號墳)의 디딜방아 짙는 여인(女人)의 저고리는 길이가 허리선까지 오게 짧고 소매길어도 짧으며 합임(合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저고리의 교임제도(交衽制度)에 있어서 상기(上記)한 대로 저고리의 기원(起源)을 전개(前開)한 관두의(貫頭衣)에 둔다고 할 때 처음에는 당연히 합임(合衽)이었을 것이고, 그 후에 단정하게 여며입기 위해서 좌임(左衽) 또는 우임(右衽)으로 되었을 것이며,⁷⁾ 이것이 다시 우임(右衽)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정착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고분벽화에는 좌임(左衽)·우임(右衽)·합임(合衽)의 형태가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들의 공존시기(共存時期)를 5세기경으로 볼 수 있으며 우임(右衽)의 정착은 6세기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분벽화를 통해 교임(交衽)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깃의 형태에 있어서는 기본형이 직령(直領)이나, 곡령(曲領)·단령(團領)도 있으며 특히 감신총(龕神塚)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에 「男女皆衣曲領…」⁸⁾이라 하여 남녀가 모두 곡령(曲領)을 입는다는 기록이 있으니 이것은 예(濊)에서 입던 형태가 고구려시대까지 착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⁹⁾

한편 소매의 형태에 있어서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매통이 좁고 길이가 손목까지 오는 착수상(窄袖狀)의 통수(筒袖)이고, 둘째는 소매통은 좁으며 길이가 긴 장수(長袖)이며, 셋째는 소매통이 넓으면서 길이가 긴 대수(大袖)이다. 이 중에서 착수상(窄袖狀)의 통수(筒袖)가 소매의 기본형이란 것은 우리 민족이 북방계(北方系)의 옷을 입었다는 데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長袖)나 대수(大袖)는 무용복(舞踊服)이나 상류층 귀부인의 저고리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문화(漢文化)의 영향으로 중국식요소(中國式要素)가 가(加)해진 것이라 하겠다.



<도 1> 저고리의 祖型(雙楹塚 벽화의 인물)

<도 1> 저고리의 조형(祖型)(쌍영총(雙楹塚) 벽화의 인물)

7)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8) 後漢書 東夷傳 藏條

9)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이와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본 바로는 저고리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저고리의 조형(祖型)은 전개식(前開式)·직령교임형(直領交衽型)에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허리에는 대(帶)를 들렀으며, 깃·도련·부리에 다른 색의 선(襖)을 두르고, 소매는 착수상(窄袖狀)의 통수(筒袖)임에 틀림이 없다. <도 1>은 우리의 고유한 저고리의 조형(祖型)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쌍영총(雙楹塚)의 벽화이다.

Ⅲ.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에 따른 저고리의 계량적(計量的) 용어(用語)

저고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길, 소매, 쇄, 깃 등의 기본구성요소(基本構成要素)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형태는 여러 가지 변화요인(變化要因)에 의하여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형태적 변화는 저고리의 길이, 소매의 길이와 소매통, 진동과 부리, 쇄과 깃 등에 다양하게 있어 왔지만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저고리의 길이와 소매통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저고리의 실루엣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저고리의 형태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에 따라 측정된 수치(數値)의 증감(增減)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사서(史書)에 나타난 저고리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用語)중에서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에 따른 계량적(計量的) 용어(用語)만을 택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장 유(長襦)

저고리의 의미로 고문헌(古文獻)에 표기된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유(襦)이다. 그러나 저고리의 구성상(構成上)으로 보면 유(襦)는 겹저고리나 솜저고리를 말하며, 홑옷을 일컬을 때는 삼(衫)이라 했다. 유(襦)에 대해서 『구당서(舊唐書)』에는 황유(黃襦)¹⁰⁾라는 기록이 있고, 『당서(唐書)』에는 장유(長襦)¹¹⁾라는 기록이 있는데 악공(樂工)이나 부인(婦人)이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장유(長襦)는 긴 저고리의 뜻이니 그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설문(說文)에서는 유(襦)의 해석을 단의(短衣)라 했고 또한 유(襦)를 의사포(衣似袍)¹²⁾라고도 하므로 장유(長襦)의 길이가 포(袍)의 길이보다는 짧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포(袍)와 구별했으리라 믿어진다.

원래 저고리는 개념상 몸의 상체(上體)를 피복하는 옷이므로 그 길이는 허리선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저고리 길이가 허리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길다」하고, 허리의 위에 오면 「짧다」고 표현한다.¹³⁾ 그러므로 장유(長襦)는 유(襦)로 길다¹⁴⁾는 뜻으로 그 길이는 허리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포(袍)의 길이보다는 짧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분벽화에 나타난 저고리의 일반적인 길이, 즉 엉덩이까진 내려오는 길이의 저고리를 장유(長襦)라고 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기능(機能)으로 보아 적합한 길이였

10) 舊唐書 志音樂 高句麗條

11) 唐書 東夷傳 新羅條

12) 北史 列傳 百濟條

13) 高福男, 前揭書

14) 李如星, 朝鮮服飾考

다고 생각된다.

2. 단 의(短衣)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단의(短衣)¹⁵⁾라고 있어 설문(說文)의 유(襦)의 해석과 일치하므로 단의(短衣)라는 것은 유(襦)이다.¹⁶⁾ 단의(短衣)는 문자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상체(上體)에 착용하는 짧은 상의(上衣)인데 여기에서 「단(短)」은 포(袍)에 비하여 짧다는 것이다. 또한 급취편(急就篇) 습자(褶字) 안사고주(顔師古註)에는 「短衣曰襦 自膝以上」이라 했으니, 이 경우의 저고리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포(袍)에 대응하는, 「자슬이상(自膝以上)」의 짧은 상의(上衣)¹⁷⁾임을 알 수 있다.

이 단의(短衣)는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興德王) 복식금제(服飾禁制)¹⁸⁾에도 보이는데, 여기에는 단의(短衣) 외에도 내의(內衣)가 있다. 내의(內衣)로 보는 저고리는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으며 단의(短衣)에 대해서도 사용했던 의차(衣次)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단의(短衣)가 어떤 옷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이 단의(短衣)를 이여성(李如星)은 저고리로 보았고,¹⁹⁾ 김동욱(金東旭)은 여복(女



<도 2> 허리정도 길이의 여자 저고리
(안악(安岳) 3호광(號擴)의 디딜방아 짙는 여인)

15) 三國史記 色服 新羅條

16) 李如星, 前揭書

17) 李京子, 前揭書

18) 三國史記 色服 新羅條

19) 李如星, 前揭書

服)에서의 짧은 저고리로 보았으며, 20) 이경자(李京子)는 배당(裵當)과 함께 입는 저고리 종류의 옷으로 추측했고, 21) 고복남(高福男)은 안악(安岳) 3호분(號墳)의 디딜방아 짙는 여인(女人)의 저고리<도 2>가 허리정도까지의 길이므로 이것을 단의(短衣)로 보았으며, 22) 김미자(金美子)는 내의(內衣)가 저고리고 단의(短衣)는 표의(表衣)로서의 짧은 포(袍)로 추측하였다. 23)

어쨌든 신라(新羅) 저고리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 수 없으나 이 단의(短衣)가 상체(上體)에 입는 짧은 옷으로서의 유(襦) 자체를 일컬음에는 틀림이 없다.

3. 대수삼(大袖衫)

저고리의 조형(祖型)에서 볼 때 소매의 기본형은 착수상(窄袖狀)의 통수(筒袖)로서 소매통이 좁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통수(筒袖)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북방계복식(北方系服飾)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매통이 좁다는 것은 중국식(中國式) 상의(上衣)의 소매에 비하여 좁다는 뜻이고 팔에 꼭 끼는 현대식(現代式) 서양복(西洋服)의 소매와 같이 좁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수서(隋書)』에는 대수삼(大袖衫)²⁴⁾이라 하여 통수(筒



〈도 3〉 長袖의 저고리(舞踊塚의 舞踊圖)

<도 3> 장수(長袖)의 저고리(무용총(舞踊塚)의 무용도(舞踊圖))

20)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21) 李京子, 前揭書

22) 高福男,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의 研究, 民俗學會誌14號, 1981

23) 金美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服飾學會秋季學術發表, 1988.

24) 三國史記 北史 列傳 高麗條

隋書 東夷傳 高麗條

袖)가 아닌 형태의 대수(大袖)라는 용어(用語)가 기록되어 있다. 대수(大袖)는 통수(筒袖)의 형태가 변화한 것일텐데 소매통이 넓어진 광수(廣袖)를 뜻하는지 혹은 소매의 길이가 길어진 장수(長袖)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혼동을 가져오기 쉽다. 이여성(李如星)은 「上記한 大袖라는 것은 廣袖와 혼동되기 쉬우나 輯安 舞踊塚의 舞踊圖를 위시하여 諸壁畫墳의 人物圖를 검찰하면 그것은 일반으로 長袖이고 廣袖는 아니다」²⁵⁾라고 했다. 그런데 쌍영총(雙楹塚)의 주인부부상(主人夫婦像)에는 광수(廣袖)가 보이고 무용총(舞踊塚)의 주실석벽(主室石壁)에도 광수(廣袖)가 보이며, 이백(李白)의 악부(樂府) 고려악조(高麗樂條)에는 「金花折風帽 翻翻舞廣袖」란 구절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있다.²⁶⁾ 여기서 무용총(舞踊塚)의 무용도(舞踊圖)에 나타난 소매의 형태를 보면 <도 3>에서와 같이 소매의 길이가 매우 긴 장수(長袖)로서 마치 조선조 후기부터 무용복(舞踊服)의 소매 끝에 길게 늘어뜨린 오삼(汗衫)을 연상시켜 주는데, 이것은 무용복(舞踊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문화(漢文化)의 영향으로 소매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라 하겠으며, 이를 대수(大袖)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듯 하다.



<도 4> 대수(大袖)의 저고리(수산리(修山里)벽화의 귀부인(貴夫人))

25) 李如星, 前掲書

26) 金東旭, 前掲書

그렇다면 대수삼(大袖衫)은 소매통도 넓으면서 소매길어도 긴 삼(衫)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소매형태의 표현성(表現性)에서 넓고 긴 소매가 귀족(貴族)의 상징으로 나타나 왔음을 동서양(東西洋)의 복식사(服飾史)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매통이 넓으면 소매길어도 길어야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대수(大袖)의 형태는 <도 4>에서와 같이 수산리(修山里) 고분벽화의 귀부인상(貴夫人像)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고유형(固有型)이 귀인계급(貴人階級)에서 중국(中國)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대수삼(大袖衫)은 귀인복(貴人服)으로서 육체노동에 매이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신분적(身分的)인 과시물(誇示物)이었는지도 모른다.

4. 단적고리(短赤古里)

저고리는 적고리(赤古里)로 표기되며 적고리(赤古里)의 최초 기록은 조선조 세종(世宗) 때 원경왕후(元敬王后) 선전의(選奠儀)에 「…紅段子赤古里…」²⁷⁾라 있고, 중기(中期)의 『尙方定例』나 『嘉禮都監儀軌』에도 적고리(赤古里)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적고리(赤古里)의 실제 음(音)이 「치고리」인지 「쳐고리」인지는 분명치가 않고,²⁸⁾ 또 적고리(赤古里)가 지금의 저고리를 지칭한 것인지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²⁹⁾

현종(顯宗) 12년 숙종인경후(肅宗仁敬后) 가례도감(嘉禮都監) 왕세자(王世子) 가례시(嘉禮時) 도청의궤(都廳儀軌)를 보면 빈모전(嬪母前) 적고리일차소입(赤古里一次所入)에, 草緣大段十一尺三寸, 內拱紅綃十一尺三寸, 纓子紫的綃長五寸廣二寸, 同正白綃長一尺五寸廣二寸五分, 中綿子十兩, 草綠眞絲七分, 紅紬絲七分이라 했으니 적고리(赤古里)의 치수가 이 때의 저고리의 치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따라서 적고리(赤古里)는 지금의 저고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선조 중기(中期) 이후부터 볼 수 있는 역대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중궁(中宮)과 서궁(嬪宮)의 의대조(衣襟條)에 단적고리(短赤古里)라는 용어가 있다. 단적고리(短赤古里)는 문자 그대로 짧은 적고리(赤古里)라 하겠다. 그렇다면 적고리(赤古里)는 길이가 길고 단적고리(短赤古里)는 적고리(赤古里)에 비해 짧다는 말일 것으로 김용숙(金用淑)은 적고리(赤古里)는 당(唐)자고리를 말함이며 단적고리(短赤古里)가 저고리를 말함이 아닌가 했다.³⁰⁾

이 단적고리(短赤古里)의 구성은 「직금청팔척오촌(織金靑八尺五寸)」에 별도로 「대홍금선이척(大紅金線二尺)」이라 했으니, 이를 들어 이경자(李京子)는 삼희장저고리와 같은 것이라 했고,³¹⁾ 고복남(高福男)은 최고신분(最高身分)의 여성(女性)에게만 한정된 가장 화려하고 고급으로 만들어졌던 특정(特定)한 저고리라 했다.³²⁾

이로써 볼 때 단적고리(短赤古里)는 적고리(赤古里)에 대(對)한 말로 짧은 적고리(赤古里)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지금의 저고리를 일컫는 것이라 보여진다.

27) 世宗實錄 卷 7, 二年九月條

28) 金東旭, 前揭書

29) 李京子, 前揭書

30) 金用淑, 李朝後期妃嬪들의 西節服飾 및 衣次, 亞細亞女性研究 5 號, 1966

31) 李京子, 前揭書

32) 高福男, 前揭書

5. 소고의(小古衣)

조선조말(朝鮮朝末)의 왕비(王妃) 평상복(平常服)을 참고하여 궁중발기(宮中撥記)에서 보면 저고리가 소고의(小古衣)³³⁾라는 용어로 나타나 있으며 송화색(松花色)과 분홍색(粉紅色)의 것을 입었다 하고,王大妃(王大妃) 소례복(小禮服)을 겸한 평복(平服)을 참고하여 보면 송화색(松花色), 보라색, 분홍색(粉紅色), 두녹색(豆綠色), 옥색(玉色) 등의 소고의(小古衣)를 입었다 한다.³⁴⁾

소고의(小古衣)는 당고의(唐古衣)에 비교되는 말로 당고의(唐古衣)보다 작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당고의(唐古衣)는 당(唐)저고리, 즉 오늘날의 당의(唐衣)를 말함이나 양옆에 절개된 긴 저고리를 이른다. 그러므로 소고의(小古衣)는 당고의(唐古衣)에 비해 길이가 짧은 저고리로서 현재의 저고리와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저고리 치수 설정(設定) 시(時)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基本要素)

1.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

의복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직접적인 표현인 까닭에 인간의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존재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의복은 살아있는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비로소 본래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의복과 인체와의 관계는 필연적인 유기성(有機性)을 갖는다. 그러므로 모든 의복은 활동하는 신체의 변화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활동에 자유를 줄 수 있으며 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이는 곧 의복에 있어서의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라 할 수 있으며, 의복이 형태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기능적(機能的)인 의복은 인체의 활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주며, 신체적으로 안락감(安樂感)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입기에 편한 조건만을 생각하여 필요 이상의 여유분을 준다면 오히려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인체의 동작(動作)에 따른 의복의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여유분을 주어야 한다. 특히 저고리는 인체에 입혀지는 여러 가지 옷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인체 중에서 활동량이 가장 큰 상체(上體)를 피복하는 옷이므로 어느 시대(時代)든지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가 매우 중요시되어 왔을 것이고, 저고리의 치수 설정(設定) 시(時)에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바로 이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였으리라 본다.

2. 미적(美的) 요소(要素)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개성(個性)을 살리고 싶어하고 특히 의복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복이 일상생활에서 실용(實用)의 목적만이 아니라 인체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 개인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물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곧 단순하게 인체를 감싸주던 의복에서 미적(美的) 요소(要素)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의복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더불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인격이나 사상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매우 복합성(複合性)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원적(一元的)인

33)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75

34)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郷土서울 18號, 1963

기능(機能)만의 의복에 다원적(多元的)인 미(美)가 더해져서 다각적(多角的)인 의복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의복의 특수성(特殊性)은 때로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미적(美的) 요소(要素)만 발달하게 되고 그 시대(時代)의 유행(流行)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난의 대상까지 되어버린 시대도 있었으니, 조선조 후기에 극도로 단소화(短小化)된 여자 저고리가 그 실례(實例)라 하겠다.

저고리는 인체 중에서 상체(上體)를 피복하는 옷이므로 보는 사람의 시선(視線)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시각적(視覺的)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미적(美的) 요소(要素)는 저고리의 치수 설정(設定) 시(時)에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와 더불어 매우 중요시되리라고 본다.

3. 저고리에서 본 기본요소(基本要素) 간(間)의 상호관계(相互關係)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저고리의 형태는 상기(上記)한대로 그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적(內的)·외적(外的)요인(要因)에 의해 시대(時代)의 변화와 함께 길이의 변화, 소매통의 변화, 섶과 깃의 변화 등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기(特記)할 것은 이와같은 시대적(時代的) 변화(變化) 속에서도 저고리 치수 설정(設定) 시(時)의 기본요소(基本要素)인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와 미적(美的) 요소(要素)가 각각 고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례(實例)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벽화에서 본 저고리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저고리의 대부분은 상기(上記)한대로 그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길고 허리에 대(帶)를 두르고 있다. 이는 저고리의 기능적(機能的)인 면으로 볼 때 그 이상의 긴 것은 불필요(不必要)했을 것이고, 또 미적(美的)인 면으로 보아도 외관상 좋지 못했을 것 같다.³⁵⁾ 반면에 허리에는 대(帶)를 둘러야 했으므로 그 길이가 너무 짧아질 수는 없으니 벽화에서 보는 길이가 가장 적당하리라 본다. 또한 허리에 대(帶)를 매는 것은 상체(上體)를 옷으로 완전히 감싸주고자 함이니 이는 방한(防寒)의 목적과 아울러 활동(活動)하기에 편하도록 한 것이며, 소매통이 좁은 통수(筒袖)와도 잘 어울리는 것이라 할 때 여기에는 기능적(機能的)인 요소(要素)와 미적(美的)인 요소(要素)가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조화는 소매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소매의 기본형은 착수상(窄袖狀)의 통수(筒袖)로서 이는 북방계복식(北方系服飾)의 특색을 살려 기능적(機能的)으로 처리된 것이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의 한 표현이 복식(服飾)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귀인계급(貴人階級)에서 보이는 대수삼(大袖衫)은 소매통이 넓고 소매길어도 길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소매의 형태로 보아 저고리의 품도 적당하게 컸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의복의 특성은 예(禮)를 중시하며 자연(自然)의 질서(秩序) 위에서 인간정신(人間精神)의 도덕적 행동에 근거한 규범에 의해서 존속되고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의례복(儀禮服)에 있어서는 손이 보이지 않게 하고 품도 넉넉하게 하여 몸매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예의로 여겼다고 하겠다. 이것은 육체적인 노동에 매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류층(上流層)의 의복이었던만큼 신분적(身分的)인 특수성(特殊性)으로 보아 그 나름대로의 기능적(機能的)인 면과 미적(美的)인 면이 고려되어 치수 설정(設定)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35) 李如星, 前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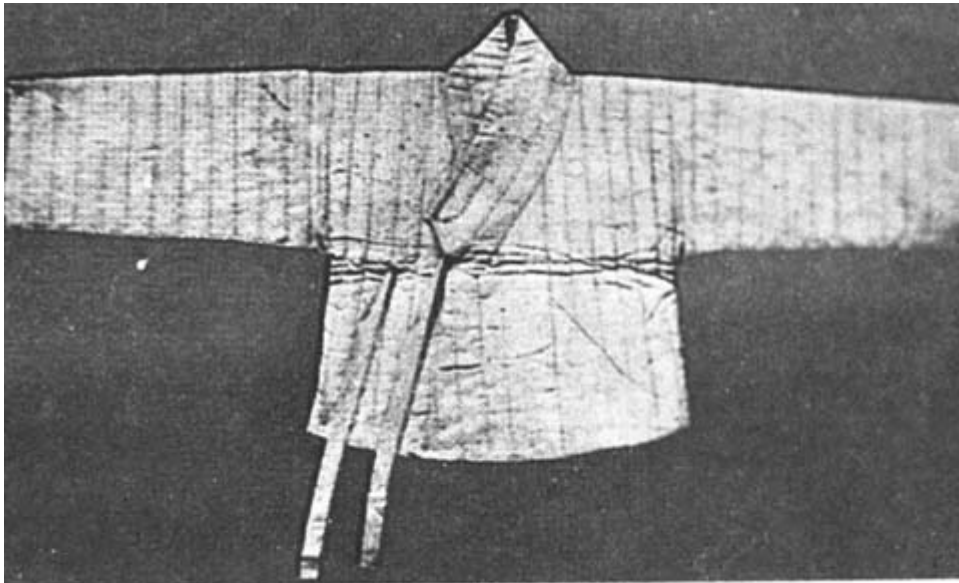
무용도(舞踊圖)에 나타난 무용복(舞踊服)의 장수(長袖)에서도 특수성(特殊性)으로 보아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와 미적(美的) 요소(要素)와의 조화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무용의 특징은 팔과 손의 부드러운 동작(動作)으로 율동미(律動美)를 표현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소매길이가 매우 긴 장수(長袖)라야 더욱 효과적이라 하겠다.

(2) 실물(實物)로 본 조선초·중기의 저고리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저고리의 실물(實物)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남자 저고리에 비하여 여자 저고리의 실물이 더 많다. 저고리의 형태는 시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시대(上古時代) 저고리의 대(帶)가 없어지고 고름이 등장된 때는 알 수 없어도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대(帶) 대신에 고름이 등장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조선초기의 저고리는 길이가 지금의 남자 저고리와 비슷하게 길고 소매는 통수(筒袖)의 직(直)배대로 진동과 부리에 별 차이가 없으며 소매길이가 길다. 깃은 목판형(木板形)과 반월형(半月形)이 공존(共存)하고 특히 현대 두루마기의 무와 같은 모양으로 옆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보이며, 동정과 옷고름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때의 옷고름은 몹시 짧고 좁아 저고리를 여미는 기본적인 기능(機能)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조선중기의 저고리<도 5>는 초기의 형태와 큰 차이없이 비슷하고 다만 약간의 길이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형태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형태에서 길이가 짧아지고 깃과 섯만 변화했으며 다른 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도 5> 조선중기의 저고리(1640년대)

<도 5> 조선중기의 저고리(164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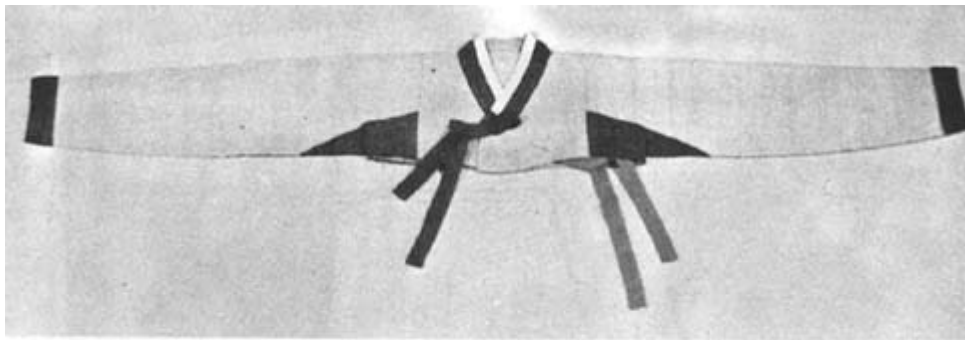
의복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특히 의복과 주거양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진 것은 오히려 온돌양식에 적합한 기능적(機能的)인 면으로 변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미적(美的)인 면에서 다시 다루어 보면 한복의 중심을 이루는 저고리의 길이와 치마길이의 비례 변화를 실물치수를 통하여 시대적으로 살펴 볼 때 1 : 1.8(1530년대),

1 : 1.3(1590년대), 1 : 1.6(1640년대), 1 : 1.38(1650년대), 1 : 2.11(1680년대) 등으로 나타난다.³⁶⁾ 물론 이 비례는 형태미(形態美)를 규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례인 황금비(黃金比)(1 : 1.618)와 비교할 때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객관적(客觀的)으로 미(美)를 관찰할 때 미적(美的) 비율(比率)에 가까운 이 시대의 한복 구성이 더 아름답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선초·중기의 저고리에서도 기능적(機能的)인 요소(要素)와 미적(美的)인 요소(要素)가 조화를 이루면서 치수설정(設定)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3) 실물(實物)·회화(繪畫)에서 본 조선후기의 저고리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저고리 형태에 단소화(短小化) 경향이 나타나면서 길이가 짧아지던 조선초·중기의 저고리가 계속적으 두드러지게 짧아져서 드디어 조선후기에 와서는 더 이상 단소화(短小化)될 수 없는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도 「지금의 上衣은 매우 짧고 좁으면 下裳은 매우 길고 넓으니 服妖하다. <중략(中略)> 지금은 그렇지 않아 새로 지은 窄袖의 옷을 입으려 할 때 매우 어려우며, 팔꿈치를 한 번 구부리면 바느질이 뜯어지고 잠깐 입어도 어깨가 편하지 못하며 벗기가 어려워 소매를 뜯어서 벗으니 가히 요사하다」³⁷⁾고 하였고,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도 「부녀의 짧은 저고리와 소매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貴賤이 적용하니 매우 한심한 노릇이다. 더구나 여름 흘적삼은 위로 돌돌 건어 말려서 허리도 감추지 못하니 더욱 悖悖하다」³⁸⁾고 하여 길이가 몹시 짧고 착수(窄袖)인 여자의 저고리를 비난하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이 때의 실물(實物) <도 6>과 혜원(蕙園)의 풍속도(風俗圖) <도 7>에서도 보면 심한 착수(窄袖)에 길이가 너무 짧아서 유방(乳房)이 보일 정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도 6> 조선후기의 저고리(1860년대)

<도6> 조선후기의 저고리(1860년대)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기능적(機能的)인 요소(要素)보다는 미적(美的)인 요소(要素)가 지나치게 중시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이 시대의 독특한 미의식(美意識)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高福男,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1987

37) 李德懋一 靑莊館全書 卷30, 士小節

38) 李翼, 星湖僿說 卷5, 人事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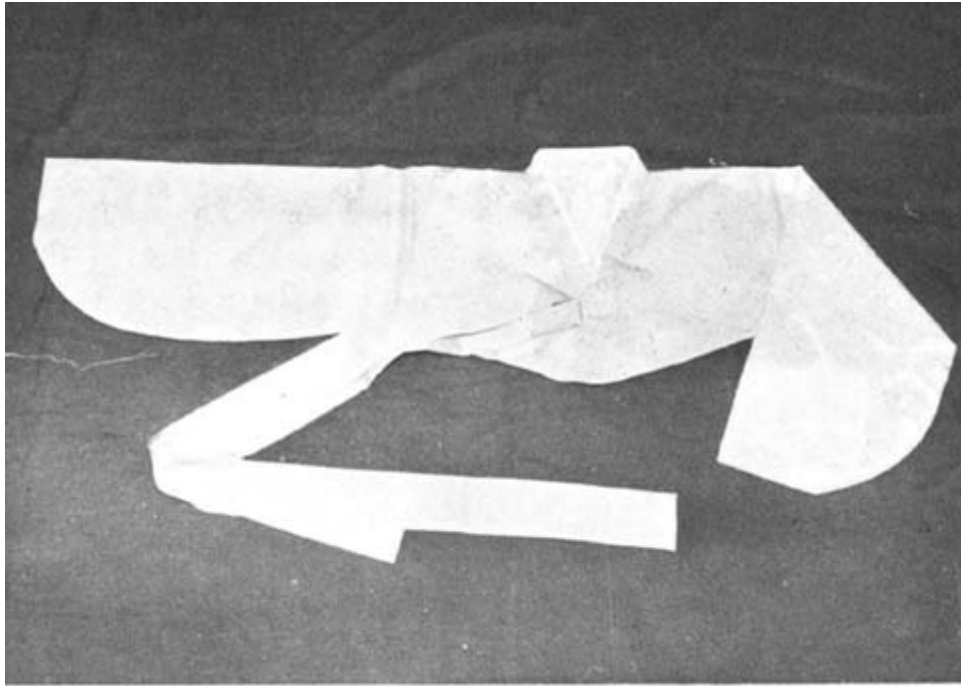


<도7> 조선후기의 저고리(혜원의 미인도(미인도))

(4) 현대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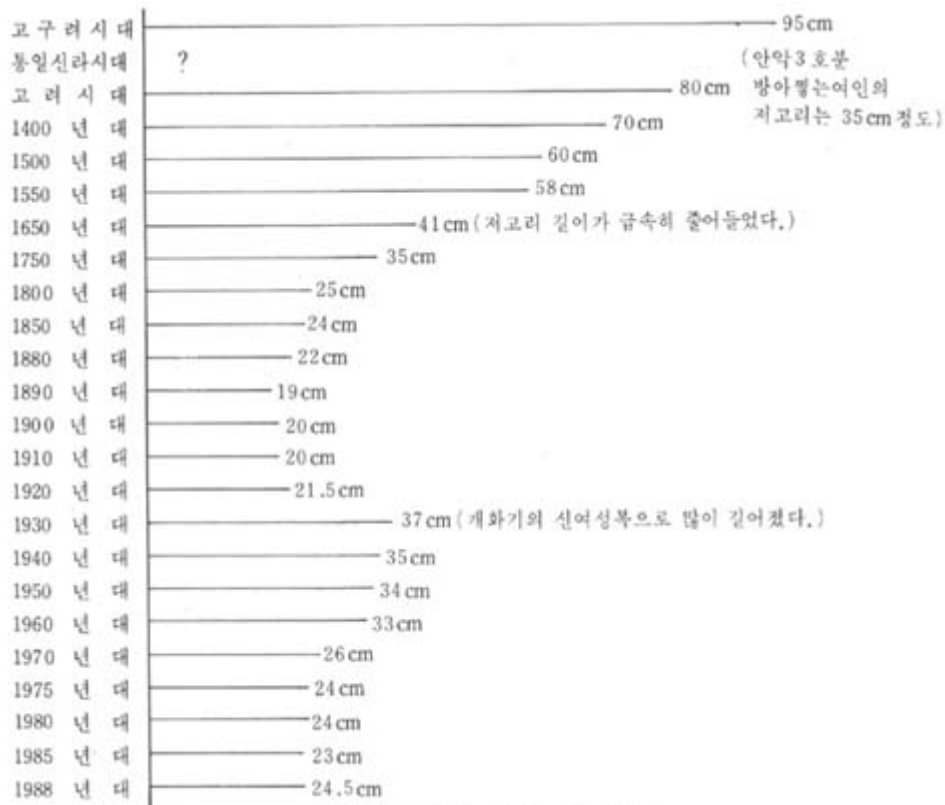
조선시대 저고리의 단소화(短小化) 경향은 개화기(開化期) 이후에 들어와 오히려 장대화(長大化) 경향으로 변화하여 길이도 적당하게 길어지고 소매통도 약간 넓어지면서 배래선이 곡선(曲線)으로 되었다. 이는 기능성(機能性)의 회복으로 다시 기능적(機能的)인 요소(要素)와 미적(美的)인 요소(要素)와의 조화를 되찾은 것이라 하겠다. 그 이후 현재까지의 형태적 변화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극히 부분적인 변화만 시대적 양상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기본요소(基本要素) 간(間)의 상호관계(相互關係)를 현대 저고리의 형태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8>에서와 같이 저고리의 앞길은 상체(上體)의 앞부분을 피복(被覆)하는 구성요소(構成要素)로서 기능적(機能的)인 면으로 볼 때 아무리 짧아도 유방(乳房)을 덮어야 하고, 유방(乳房)의 돌출량(突出量)으로 인해 적당한 앞치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겨드랑이 밑부분의 옆선 치수는 팔을 움직였을 때 지장이 없어야 하는 기능적(機能的)인 면과, 긴 치마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미적(美的)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충된 최소한의 치수이므로 앞중심부를 처지게 하면서 쇄코로부터 시작되는 도련선은 유방(乳房) 밑을 따라 은은한 곡선(曲線)으로 겨드랑이 밑까지 연결된다.



〈도 8〉 현대 저고리(1988년대)
 <도8> 현대 저고리(1988년대)

뿐만 아니라 앞길에는 성이 붙여지는데, 형태상으로는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뒷폼에 비해 넓은 치수가 요구되는 앞품을 처리해 주고 앞여밈을 단정하게 정리해 주는 중요한 기능(機能)을 갖고 있다. 만일 성이 없고 서양복(西洋服)에서와 같이 앞길의 폼을 넓게 재단(裁斷)하여 만든다면 그 저고리의 느낌은 과연 어떠할까. 이와같은 도련선과 성부분에는 기능적(機能的)인 요소(要素)와 미적(美的)인 요소(要素)와의 교묘한 조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화는 소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진동은 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이의 치수는 기능적(機能的)인 면과 미적(美的)인 면을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결정되어지며, 부리의 치수도 마찬가지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 진동과 부리를 끈게 연결하여 배래선을 구하면 이것은 착수(窄袖)가 되어 활동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도련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미적(美的)으로 쾌감(快感)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기능적(機能的)인 면과 미적(美的)인 면을 고려하여 배래선이 곡선화(曲線化)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진동과 부리의 치수는 그대로지만 팔꿈치 부분의 소매통은 넓어지게 되어 팔을 굽히는 활동이 매우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깃, 동정, 옷고름, 그리고 회장(回裝)자고리의 끝동과 결마기 등에서도 각각 기능적(機能的)인 요소(要素)와 미적(美的)인 요소(要素)와의 조화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조화들이 종합되어 저고리 구성선(構成線)의 아름다운 미(美)를 표현해 주고 있음을 실감(實感)할 수 있다. 이로써 시대적으로 볼 때 저고리의 길이는 치수 설정(設定) 시(時) 가장 변화가 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참고로 시대별 여자 저고리의 길이 변화도를 제시하면 <도9>와 같다. 여기에는 고구려시대의 치수는 벽화에 나타난 저고리의 형태로 추정(推定)한 것이며, 그 외의 치수는 실물실측(實物實測)에서 얻은 평균(平均)값이다.



〈도 9〉 시대별 여자 저고리의 길이 변화

<도9> 시대별(時代別) 여자 저고리의 길이 변화

V. 결 어(結語)

우리나라 여자 저고리는 한복(韓服)의 일부분이지만 복식구조(服飾構造)로 보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고리의 형태는 상고시대(上古時代) 이래 현대(現代)에 이르기까지 다소(多少)의 변화는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上代)의 유(襦)를 기본으로 하여 시대(時代)에 따라 길이와 선(線)의 차이를 보이면서 오늘날까지 전승(傳承)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고리의 형태적 변화는 사실상 저고리의 형태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에 따라 추정된 수치(數値)의 증감(增減)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韓服)의 다각적(多角的)인 연구(研究) 중의 한 분야(分野)로 구성학적(構成學的)인 측면(側面)에서 여자 저고리를 중심으로 하여 치수 설정(設定)에 관하여 다루어 본 결과 다음의 것들을 얻었다.

관두의(貫頭衣)의 형태에서 발전한 저고리의 조형(祖型)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전개식(前開式)·직령교임형(直領交衽型)에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허리에 대(帶)를 둘렀으며 가장자리에 다른 색의 선(襖)을 두르고 소매는 착수상(窄袖狀)의 통수(筒袖)이었다.

저고리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用語) 중에서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에 따른 계량적

(計量的) 용어(用語)를 사서(史書)에서 찾아보면 장유(長襦), 단의(短衣), 대수삼(大袖衫), 단적고리(短赤古里), 소고의(小古衣) 등이 있었다.

저고리의 구성(構成)을 위해 치수를 설정(設定)할 때에는 특히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基本要素), 즉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와 미적(美的) 요소(要素)와의 상호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미흡(未洽)하지만 한복(韓服)의 구성학적(構成學的) 측면(側面) 연구(研究)를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에 의의(意義)를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嘉禮都監儀軌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 ——,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1987
- ——,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의 研究, 民俗學會誌 14호
- 舊唐書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 金美子, 치마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研究, 服飾學會 秋季學術發表, 1988
- 金用淑, 李朝後期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亞細亞女性研究 5號, 1966
- ——, 宮中撥記의 研究, 鄉土서울 18號, 1963
- 唐書
- 比史
- 三國史記
- 尙方定例
- 徐英淑, 被服材料·管理, 螢雪出版社, 1975
- 世宗實錄
- 隋書
- 柳頌옥玉, 高句麗服飾研究, 성균관대논문집 28집, 1980
-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75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 李德懋, 靑莊館全書
- 李如星, 朝鮮服飾考
- 李 瀾, 星湖僿說
- 李柱媛, 韓服의 치수 設定에 관한 研究(I), 文化財 20號, 文化財管理局, 1987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 韓國史, 震檀學會, 1959
- 後漢書
-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光生館, 1958
- 田中千代, 服飾事典, 同文書院, 1978